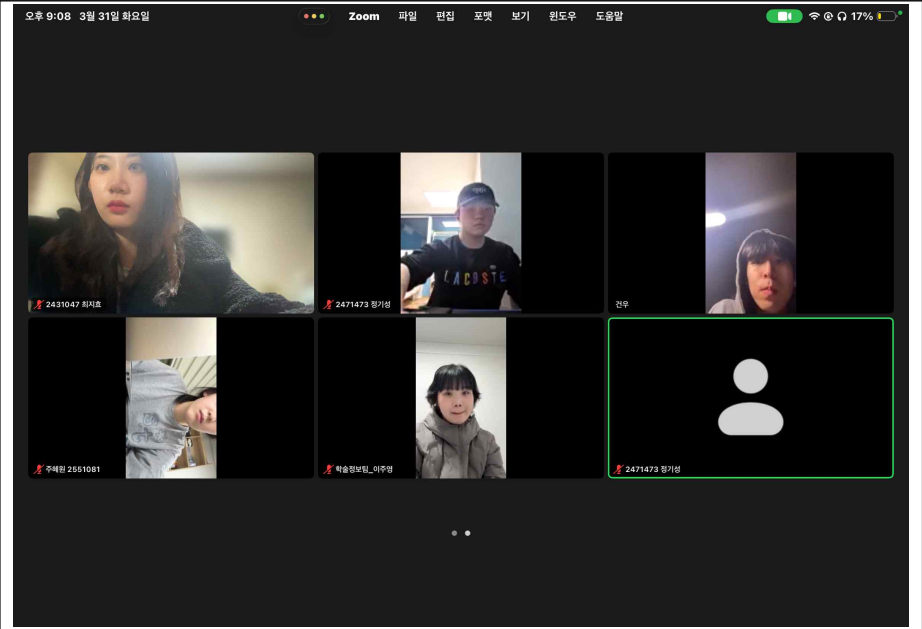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14팀

1주차	일시	3월 31일(화) 21:00-22:00 장소명 줌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노건우) 2471517	O
		(정기성) 2471473	O
		(주혜원) 2551081	O
(최지효) 2431047		O	
진도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진도페이지: p.31~p.76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최지효, 정기성, 노건우, 주혜원, 담당자님]</p> <p>2471517 노건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천문학적 관점과 연결해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책에서 스미스가 과거 천문학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보고, 경제학과 전혀 다른 분야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각 행성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도 우주 전체의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단순한 거래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스미스의 사고가 매우 통합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2471473 정기성 저는 애덤 스미스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이 타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p>	

1주차	토론 내용	<p>2551081 주혜원</p> <p>저는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이기심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미스는 이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 인정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로 설명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기심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p> <p>2431047 최지효</p> <p>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사례를 떠올리면서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가게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활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설명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이 모여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p>
-----	-------	--

2주차	토론 내용	<p>2551081 주혜원</p> <p>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노동 수요 증가로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가들이 이를 줄이기 위해 기계를 도입하고,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며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노동자가 자신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잉여가치가 자본가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가치가 노동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본은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p> <p>2431047 최지효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연으로 설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잉여가치 개념을 통해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 일부만 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구조를 설명한 부분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기술과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대 사회의 플랫폼 노동이나 자동화 현상과도 연결되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교육, 복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	---

3주차	토론 내용	<p>2551081 주혜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한계소비성향과 승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의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를 유발하여 경제 전체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승수가 커지고, 정부 지출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이나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론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불황기에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수요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재정 적자가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경제가 회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실업과 성장 둔화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적절한 재정 지출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이후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 증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2431047 최지효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케인스가 경제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유효수요 개념을 통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대공황과 같은 사례를 통해 시장이 항상 스스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정 적자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p>
-----	-------	--

	일시	4월 28일(화) 21:00-22:00 장소명 줌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노건우) 2471517	O
		(정기성) 2471473	O
		(주혜원) 2551081	X
(최지효) 2431047		O	
진도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진도페이지: p.105~p.138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최지효,정기성,노건우]</p> <p>2471517 노건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초기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인간관이다. 애덤 스미스와 멜서스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고 현실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에서 인간의 본성이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학이 학자 간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학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자유무역은 각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분야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모든 생산에서 우위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에 특화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무역은 제로섬이 아닌 상호 이익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자원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2471473 정기성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비교우위 이론은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분야에 집중할 때 전체 생산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한 능력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효율성에 주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생산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라도 산업 간 효율성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수입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이득이다. 이는 어떤 선택이 더 적은 포기를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고이다. 결국 이 개념은 경제학이 선택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임을 보여주며, 국제무역을 이해하는 핵심 원리라고 생각한다.</p>	

4주차	토론 내용	<p>2431047 최지효</p> <p>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무역론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비교우위 개념이다. 이는 절대적 능력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하며,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에 특화할 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유치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도태될 수 있으며,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실업과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량, 에너지, 첨단 기술과 같은 분야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은 중요한 이론이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보호무역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p>
-----	-------	--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노건우) 2471517	이번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경제학 이론이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원리가 단순히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관점을 함께 접하면서, 이러한 시장 시스템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분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격차와 노동 소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경제 사상을 비교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정기성) 2471473	이번 독서토론을 통해 경제학 이론들이 단순히 과거의 학설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인스의 이론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시장이 항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 경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케인스 이론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를 현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며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의 토론에서는 정부 개입의 적정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이를 통해 경제 정책은 단순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경제를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주혜원) 2551081	이번 활동을 통해 애덤 스미스부터 마르크스, 케인스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거장들이 남긴 유산을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사회 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치환하고, 이를 '공정한 관찰자'라는 도덕적 기제로 뒷받침한 낙천적 사고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거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적의 가격을 찾아간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불평등의 심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노동 가치가 온전히 임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와 기술 발전이 오히려 실업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단계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내포한 불안정성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때는 막연했던 경제 이론들이 토론을 거치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경제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모순,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깨달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4	(최지효) 2431047	이번 독서토론 활동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각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보완하며 발전해왔다는 흐름이 인상 깊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논리에서 출발해 마르크스의 비판을 거쳐, 다시 케인스의 정책적 대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경제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온 학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이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 경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경제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나만의 경제적 시각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활동
후기

